한국의 장기발전을 위한 문화경쟁력 제고방법에 관하여

朴 東 奎 / 서울大 人文大 敎授

1. 문화 경쟁력의 문제가 왜 대두되고 있는가

오늘의 세계는 문화라는 삶의 양식을 통해 이를 국가적 개별성과 특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다문화 양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각 국가들은 각기 삶의 장구한 발전과정에서 축적 된 문화의 다양한 양식을 보다 정교한 개성으로 무장하여 그들 국가의 경쟁력으로 승화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쟁력은 문화의 보다 높은 세계인 국가라는 범위의 특수한 능력으로 자리잡게 되어 문화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적 힘으로 작용한다.

즉 유럽문화가 선진적 삶의 전형이 되거나 미국적 생활양식이 그 영향을 세계로 전파시키게 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어떻게 국가적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 우위를 가지게 하며 이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점이 각 국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문화의 경쟁력은 문화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미치는 세계 전반과 연결되어 있어서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선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선진성은 과학적 기술이 지니는 우위와 함께 문화적 발전의 우위가 결합하여 무엇이 보다 나은 것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평범한 예이지만 같은 성능을 가

오늘의 세계는 문화라는 삶의 양식을 통해 이를 국가적 개별성과 특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다문화 양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각 국가들은 각기 삶의 장구한 발전과정에서 축적 된 문화의 다양한 양식을 보다 정교한 개성으로 무장하여 그들 국가의 경쟁력으로 승화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진 텔레비전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 디자인의 멋을 측정하는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가바로 선진적 문화의 영향과 밀접하게 접합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진적 문화라는 인식이 문화의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진적 문화와의 접합은 국가적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전통적 목각의 민속성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이 목각의 형상이 부강한 국가의 한 문화와 접합되어 또 다른 의미로 발전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선진성이 경제적 우위나 정치 군사적 힘만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멋을 판별하는 기준은 멋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하는 점에 더 가깝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선진적 문화라는 포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우리의 문화발전 방향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가

오늘의 우리 정부는 문화경쟁력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이를 고양시키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의 단적인 증거는 문화부 예산이 어느 때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문화진흥원을 통해서 적지 않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적 특성을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문화육성에 수많은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확연한 결과가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물질만능적 사회풍조에 대하여 개탄을 하면서도 물질 만능의 세계가 아닌 보다 가치있는 삶의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문화향수적 삶의 목표를 드러내놓은 대안적 삶의 지표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바로 문화진흥을 위한 노력이 실제적 영역으로 그 힘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수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며 일으켜 세우려 하는 문화적 성과가 비록 가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몇 가지 문화의 양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이 국가의 국민이 지니고 있는 삶의 본태적 양상과 보

다나은 삶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가 없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어떤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뭉쳐진 의견이나 드러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흔히 물질만능적 사회풍조에 대하여 개탄을 하면서도 물질 만능의 세계가 아닌 보다 가치있는 삶의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문화향수적 삶의 목표를 드러내놓은 대안적 삶의 지표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바로 문화진흥을 위한 노력이 실제적 영역으로 그 힘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임금제의 변동, 구조조정에 있어서 경쟁력의 가치라던가, 또는 인문과학의 고사화현상과 같은 문제들은 물질만능적 삶의 풍조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물질만능적 삶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구조안에서이와 다른 가치있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하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삶의 전망이 비교치로서 마련되지 않고 있다.교육의 문제 역시 취업이 목표인 대학을 만들고 또 얼마나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가에 대한 요구만이 기준이 되는 풍토로 해서 대학의 본래적 존재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지난 시대의 유물처럼 밀려나 있어서 이에 대한 물음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상업주의의 발달과 인간의 순수한 삶과의 마찰의 문제이다. 상업주의의 팽배는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을 범위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몰가치적 정신관을 낳게 하고 있다. 즉 성의 상품화, 청소년대상의 저질문화양산, 놀이문화의 자극화, 문화성향의 의도적 변형, 창작문화의 상업적 저질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상업주의적 성향은 날로 그 위력이 커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창조의 방식에 있어서 문화수요자와 창조자간에 건전한 교섭의 관계보다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우선하는 수요자중심의 문화현상이 지닌 좋지 않은 성향이 빚어내는 불건전한 관계가 있다. 셋째는 문화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들은 바로 문화가 인간의 삶에 뿌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그 바탕에 삶을영위하는 문화창조와 수용의 주체인인간의 인간다움에

관한 기본적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 되고 있다.

3.미래를 바라보는 문화경쟁력의 실제적 전망에 관하여

먼저 문화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시행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문화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문화적 속성의 요소를 바라보는 시각의 설정이 무엇보다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도적 문화의 중심적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하는 점을 설정하는 시각은 시대, 민족, 국가라는 시간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을 선도적 문화양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그들 특유의 종합적 예술양식을 중심축으로 해서 전통보다는 실험 혹은 형식의 포장보다는 실질이라는 국가적 특성을 가미한 분야를 선도로 삼으로써 바탕에 영화예술의 대중성과 뮤지칼이라는 예술양식의 고급성을 핵심으로 해서 발전의 역동으로 하고 이에 발전적 형상으로 미국적인 것의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문화발전에 대한 시각을 미래적 전망으로 체계화시키고자 할 때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적절한 연결점을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설정하는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대중문화의 민족적 개별성을 축으로 하여 민족문화의 특성을 국가적 지향의 이상으로 대중문화의 민족적 개별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양식의 연결점을 설정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의 확보야말로 삶의 퇴적적 문화가아니라 창조적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집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문화적 세계를 어떤 전망의 틀 안에서 육성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현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수용의 방식에 있어서 보편성확보라는 문제이다. 흔히 국악과 서양음악과의 사이에 놓여진 차별성이 서로의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분리된 채 있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예술을 이해하는 보편성의 이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또 대중문화가 안

고 있는 문제들을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여 기호 그 자체를예술적 성취의 의미로 해독하려고 해도 문화발전의 장애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예이지만 국가 행사에 있어서 악대의 경우 양악기를 연주하는 경우와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경우의 차이를 단순한 민족적 시각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양악이 가지는 예술성과 국악이 지닌 예술성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문화발전을 위한중심적 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는 문화의 육성방안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국민의 실제적 삶의 풍요로운 이상과 연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문화경쟁력은 단순히 문화의 상품화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힘이다. 이러한 직접적 방식보다는 오히려 우회적이면서 기본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문화의 상품화를 통한 세계 문화의 선봉을 점령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국민에게 있어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정은 바로 그 국민의 문화발전의 정신적 자양이 되는것이다 예를 들어 검소한 삶의 실천이 왜 미덕이며 이 미덕을 실천하기 위한 생활의 방식이 바로 문화창조의 토양이 되며 이 토양에 어떤 발전적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국민 스스로가 인식할 때 비로소 높은 문화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높은 문화수준의 이상과 낮은 문화수준의 바탕이 서로 연결되는 문화중심축의 형성이 있어야 실제적 삶의 터전에서 문화의 창조와 수용이 함께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갈것이다.

미래를 향한 문화 경쟁력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문화경쟁력은 단순히 문화의 상품화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힘이다. 이러한 직접적 방식보다는 오히려 우회적이면서 기본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문화의 상품화를 통한 세계 문화의 선봉을 점령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이 기본적 방식은 문화가 인간의 정신과 정서의 표현이며 삶의 창조적 세계라는 인식을 가지는데 있다. 즉 국민이 지니고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한 정신적 체계와

정서적 이해의 능력을 보다 치밀하게 조직하여 삶의 이상을 보편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문화가 월등하다는 오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세계와 우리가 꿈꾸고있는 삶의 이상이 참다운 인간다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이들과 문화를 수용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장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장치는 문화행위에 대한 간섭이나 제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삶의 세계를 공동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저질 퇴폐 등 부정적 문화현상과 질 높은 문화현상과를 대비하는 균형적 위치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예술분야의 고도화된 양식을상호 영향권으로 몰아가는 집단적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예술양식의 장르가 해체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창조자들이 서로의 영향력을 교환할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국가적 문화발전의 모태가 될 것이다. 끝으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 외래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교섭에 있어서 균형된 시각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예술 분야와 산업분야의 적합한 교류를 통해서 세계 속에 우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페르시안 카페트가 세계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우리 문화 안에서세계로 지향하는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상품에 반영하는 방식의 보다 세련된 기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페르시안 카페트가 세계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우리 문화 안에서세계로 지향하는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상품에 반영하는 방식의 보다 세련된 기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문화경쟁력의 확보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과 미래를 향한 고유 문화의 전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체계화의 작업을 통해서이다.

결론적으로 미래를 향한 문화경쟁력의 확보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과 미래를 향한 고유 문화의 전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체계화의 작업을 통해서이다. 문화의 고유성이나 세계화를 위해서 외래적인 것에 대한 맹종은 결국 국가적 삶의 이상을 문화로 반영하고 이를 가치와 정서나아가상징과 의식으로 발전시키는 문화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기에 문화의 전망을 삶의 터전에서 세워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S